

전주문화원

아름다운 우리전주



'96년 제13회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 입상작품집

아름다운 우리전주

인쇄 · 1996년 10월 10일

발행 · 1996년 10월 15일

발행인 · 金 光 鎬

편집인 · 宋 榮 相

인쇄인 · 徐 禎 一

發行 · 全州文化院

561-090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83

흥건빌딩 9층 ☎ (0652) 88-7500

印刷 · 新亞出版社

☎ (0652) 75-4000

〈非賣品〉

本 圖書는 全州市의 支援金으로 出刊함.

운문부 · 은상

전주의 자랑

전주 금암초등학교

3학년 5반 이 우 상

엄 마 최 미 애

내가 태어난 전주엔
비빔밥 자랑이 있어요.
기린봉에 올라 뜯은 고사리
완산칠봉 약숫물로 할머니께서
나 키우듯 키우신 콩나물
남고산에 자라던 취나물에
노르스름하고 먹음직스런 창포묵
어머니 손끝 맛이 듬뿍 담긴
된장 고추장을 함께 넣으면
맛있는 비빔밥이 되지요.
전주의 곳곳에서 자라는 나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맛을 내듯
우리도 그렇게 모여서
어우렁 더우렁 재미나게 살아요.

운문부 · 은상

전주의 자랑

전주 삼천초등학교

3학년 3반 유광수

엄마 백인순

전주하면
어머니의 품속같은
동화나라

전국에서 알아주는
비빔밥 콩나물국밥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돈다.

풍남문 경기전 덕진공원 등
유적지를 보면
인심 좋고 포근한 전주
내 맘에 든다.

전주의 자부심을 갖고
사랑으로 가득찬
전주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운문부 · 입선

전주의 자랑

전주 남초등학교

3학년 6반 박준섭

엄마 김미자

별처럼 수많은 나물들이
새하얀 쌀밥위에
그림을 그린다.

빠알간 물감처럼
다소곳이 놓여있는 고추장은
우리의 입맛을 돋구어 주고

하얀 울타리에
노란 집 한채가
푸른 들판 위에
다소곳이 놓여 있어

우리의 입맛을 돋구어 준다.

전주의 자랑

전주 북일초등학교

6학년 4반 장 유 미

엄 마 정 숙 자

나는 작년 이맘때쯤 이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생활중 마지막으로 이 대회에 엄마와 함께 참가해 보기로 하였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전주의 자랑을 글로 써보려고 한다.

전주의 첫째 자랑거리는 전주의 맛이다. 특히 전주 비빔밥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음식이다.

전주는 맑은 산과 들판이 많아서 여러가지 깨끗한 나물이 많이 난다.

그래서 전주의 비빔밥이 맛있는 것 같다. 이렇게 깨끗한 전주에서 나는 나물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콩나물과 미나리가 있다. 이렇게 전주에서 나는 콩나물로 만드는,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있다. 바로 콩나물국밥이다. 그외에도 전국에서 유명한 전주의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맛에 대해서는 이만 설명하고 전주의 대표적인 놀이인 '대사습놀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주의 자랑 < 먹을거리 >

전주 풍남초등학교

6학년 3반 김 윤 선

엄 마 이 경 숙

언제나 지금쯤이면 담아먹는 열무김치가 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집 밥상에는 이 열무김치가 빠질 수 없었다.

열큰한 풋고추도 넣고 국물도 자작자작하게 넣어서 담근 열무김치는 익으면 익을수록 맛이 있다. 고추장에 보리밥에 열무김치를 넣고 비벼먹는 맛은 우리 전주 고유의 맛을 더욱 더 상징해 준다.

또 전주 콩나물비빔밥하면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들을 넣고 짹 짹 비벼먹는 맛은 정말 셋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를 정도다.

내가 어렸을 때다.

우리 할머니댁은 시골이라 도토리묵을 많이 쭈어 먹는다. 큰엄마와 할머니는 도토리를 매일매일 주워다가 모아서 도토리묵을 만드는데 큰 가마솥에 물을 때면서 뿜아서 놓은 도토리 가루를 넣고 끓인다. 할머니는 물을 때시고 큰엄마는 도토리묵을 저으시는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는다. 한참을 끓이고 나면 조

금전만 해도 가루였던 도토리가 묵어지면서 도토리묵이 된다.

그러면 그 가마솥에 있던 도토리묵을 큰 움푹패인 판에 부어놓고 한참동안 식힌 다음 칼로 알맞은 크기로 썬다. 그러면 도토리묵이 되는데 양념장을 만들어 찍어먹는 맛, 그 맛은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사다먹는 그 맛보다 직접 할머니 손으로 만들어 주신 그 도토리묵 맛은 더더욱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 준다.

이와 같이 우리 전주의 특유의 먹거리는 종류가 다양하다. 열무김치, 콩나물비빔밥, 도토리묵은 항상 전주의 토속음식점이라면 빠질 수가 없는 음식들이다. 열무김치와 콩보리밥, 콩나물과 비빔밥, 도토리묵과 양념장. 떼어 놓을수 없는 음식의 궁합이라고나 할까.

우리 전주의 자랑 먹거리는 많지만 이렇게 요약하여 적어 보았다. 이런 먹을거리들이 오래오래 그 맛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들에게도 우리의 전통음식맛을 길들여 주었으면 좋겠다.

피자와 치즈와 햄버거에 기준을 두지 말고 우리의 음식맛, 우리의 자랑거리를 살려서 길이길이 우리 고장의 맛을 보존했으면 좋겠다.

전주의 자랑

전주 초등학교

4학년 4반 홍 지 혜

엄 마 차 순 순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살으리라.”

내가 알고 있는 전주의 자랑을 몇가지 해보고 싶다.

전주역의 기와집 모양은 전주를 처음 찾는 이들에게 포근하고 다정한 전주 시민의 자랑임과 동시에 선물이다.

한옥단지를 지정해서 한옥을 보존해 후손들에게도 옛 모습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전국에서 유명한 ‘전주의 비빔밥’은 전통음식으로 유명하고 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호박나물 등등 갖은 양념과 나물로 만든 비빔밥은 정성이 가득 담긴 독특한 음식 맛으로 전국에 소문이 나있다.

한번 먹어본 사람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고고한 옛모습 풍남문을 돌아서 경기전과 오목대를 돌아보면 전주천이 눈앞에 온다.

옛날에는 맑은 물고기를 잡아서 끓였다고 하는 ‘오모가리탕’은 음식의 고장인 전주를 더 빛내준다.

지금은 전주천이 더러워서 전주천 물고기는 먹을 수 없다니 조금은 아쉬웁다.

더욱더 깨끗하게 가꾸고 보존해서 맑은물에 물고기가 뛰어노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국악잔치인 전주 대사습놀이를 전주에서 개최하여 흥겨운 판소리와 어우러지는 국악한마당은 후백제의 도성처럼 고도의 전주를 지켜오는듯 하다.

휴식장소와 맑은 공기를 선사해 주는 완산칠봉에 오르면 우람하게 우뚝 솟은 나무들과 다람쥐가 반겨 준다.

정상인 팔각정에 오르면 전주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가슴이 트인다.

그처럼 넓고 큰 우리학교도 조그맣게 보인다.

도시의 매연과 공해 속에서도 우리에게 맑은 공기, 상쾌한 마음을 선물해주는 산들과 공원들이 삶의 윤희유처럼 우리들에게 베풀어주는 전주의 신선한 공기.

잘 가꾸고 만들어서 잘사는 전주를 만들자!

깨끗한 전주! 희망찬 전주!를 만들자.